

# 職業觀과 社會構造

金 瑰 東

(서울大 社會大 教授)

<차례>

1. 主題의 性格
2. 職業의 價値에 대한 意識
3. 職業에 대한 認知와 社會構造
4. 妨碍과 논의

## 1. 主題의 性格

직업의 사회학적 의의를 주로 階層 또는 階級이라는 맥락과 관련시켜 살펴보는 일 말고, 사람들이 지니는 직업관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직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觀念)를 통하여 사회구조의 성격에 접근함으로써 탐색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작업은 그간 사회학계에서 꽤 성행해 온 바이지만, 그 주된 내용은 이른바 직업의 權威(威光)評價(prestige evaluation)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계층현상의 多元性에 관해 언급할 때에는 의례히 Max Weber의 이론바 3P를 들먹인다. 첫째는 소유자산(property)에 입각한 경제적 계층으로서의 계급(class)이고, 둘째는 사회적 위광(prestige)으로 좌우되는 지위집단(status)이며, 셋째는 정치적인 힘(power)로 규정되는 政黨(party)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직업의 경제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계급적 의미를 부여하는 접근이 말하자면 직업에 의한 계급구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시도하였고, 그것이 앞의 두 글에서 다루어진 셈이다. 이 글에서는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직업을 둘러싼 사람들의 意識 또는 態度를 통하여 사회적 위광의 체계와 권력의 구조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나, 여기에 제공하는 자료와 같은 종류의 것은 아직까지 사회학적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선 그 특이성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여태까지의 연구에서 직업적 위광의 평가라고 하면 대부분 직접 어떤 특정 직업들에 관한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를 가지고 각 직업(또는 직업범주, 직업군)의 상대적 위세를 가늠하는 일을 뜻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직업평가를 하는 기준 또는 가치의 바탕에 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 중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사회마다 전통적 가치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관도 다를 것이고,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처럼 다른 직업관이 비슷하게 수렴될 것이라는 가정을 안고 직업의 위세평가를 하기도 했다(Kim, 1978a 참조). 직업의 위세와 사회적 지위가 다르게 평가된다면 그 평가는 과연 어떤 가치기준에 따라 다른가 하는 문제를 직접 취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관련된 자료를 일부 시사하게 된 것이다.

다음, 직업과 권력의 문제 또한 사회학에서는 비스듬하게만 다루어 왔지, 곧 바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오지는 않았다. 예컨대 권력구조 내지 권력의 사회적 분포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특정 직업집단이 언급된 경우는 가끔 있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C.W. Mills의 권력엘리트와 화이트 칼러 연구(1951, 1956), Floyd Hunter의 지역공동체 권력구조 연구(1953), Robert Dahl(1961), G.W. Domhoff(1967) 등의 연구들이다. 그러나 직업 그 자체와 권력구조와의 관계라든가, 직업의 권력적 속성 같은 것에 관한 연구는 그리 흔하지 않다(Pavalko, 1971; Form and Huber, 1976).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시 주관적 평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권력구조에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해 보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의 위세평가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진 셈인데, 최초의 시도는 1957년 李萬甲 교수의 논문에서 보고한 것이고, 60년대 초의 李相伯, 金彩潤 교수의 연구(1966)와 李海英, 金璟東 등의 연구(1970), 그리고 70년대의 김경동(1979)의 연구 등이 그 보기들이다. 특히 나는 60년대와 70년대의 종단적 비교 뿐 아니라, 직업평가 기준의 첨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 기회구조의 이해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이를 과거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업평가에 의한 사회구조의 권력배분과 관련된 측면을 탐구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 활용한 자료는, 앞의 글(職業의 社會經濟的 屬性과 階級區分)에서

소개한 자료와 같은 원천에서 얻은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80년에 실시한 교육연구와 1981년에 행한 사회발전연구가 그것이고, 이들 자료의 성격에 관한 해설은 앞글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2. 職業의 價値에 관한 意識

직업평가에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려는 것은, 사람들이 選好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왜 그런 직업을 중시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어떤 특정직업을 선호할 때는 그 직업이 가져다 주는 삶의 어떤 가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왜 특정 직업을 더 바라는지도 관련지어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침 1980년의 교육연구에서는 이와 관련있는 태도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여기 소개한다. 우선 직업선택 문제는 성인응답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직업을 통해 알아 볼 것이고, 이어 이런 직업선택과 삶의 가치 또는 자녀교육의 목적 같은 것과의 상관관계도 검토할 것이다.

**職業選好의 類型** 이번 교육연구에서는 비단 성인응답자들이 아들에게 희망하는 직업선택 자료 뿐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생 1,526명에게서 얻은 자신들의 장래 희망 직업에 관한 자료도 얻었기에 <표 1>에 비교를 위해 실어 보았다. 전반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전문직과 관리직 등 화이트칼리 직종 쪽으로 기울어 있는 터라 자료가 불완전하지만 참고가 될 만하리라 본다.

대개 23개 종류의 직업에 고르게 분포될 것을 가정하면 하나에 약 4% 씩 해당되는데, 이를 감안, 4%를 초과하는 직업을 보면 의사, 교수, 기업경영자, 판검사(변호사 포함하면 더 는다), 고급공무원, 기술자, 정치가, 과학자, 외교관, 엔지니어 등의 순서로 선호도가 나타난다. 1% 미만의 직업들은 상인, 예술가, 약제사, 은행원, 경찰 등의 순위이다. 흔히 직업의 위광 내지 지위 평가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의사, 교수, 법조인 등 고위 전문직과 기업가, 고급공무원 등 고위 관리직의 「인기」가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직업들은 그 속성이 물론 위세가 높고, 소득이나 영향력의 면에서도 두드러진 것들이다. 앞서 분석한 계급구분에서도 중상과 상류계급에 해당되는 직종들이다.

〈표 1〉 희망직업(교육연구)

희망직업	아들의 장차직업(성인)		본인의 장차직업(고등학생)		순위 차이 (A-B)
	%	순위(A)	%	순위(B)	
의사	12.6	1	5.7	6	-5
교수(학자)	11.4	2	4.7	9	-7
기업가(경영자)	9.6	3	8.7	2	1
판검사	9.5	4	2.6	13.5	-9.5
고급공무원	8.4	5	7.8	3	2
기술자	6.1	6	3.8	11	-5
정치가	4.9	7	2.7	12	-5
과학자	4.8	8	2.6	13.5	-5.5
외교관	4.4	9	2.5	15.5	-6.5
엔지니어	4.1	10	4.5	10	0
군장교	3.8	11	5.5	7	4
사회사업가	3.2	12	6.1	4	8
교사	2.9	13	15.2	1	12
변호사	2.2	14	0.9	23	-9
성직자	1.6	15	1.6	21.5	-6.5
체육인	1.2	16	2.1	17	-1
언론인	1.1	17.5	1.7	20	-2.5
농민	1.1	17.5	1.8	18.5	-1
상인	0.9	19	1.6	21.5	-2.5
예술가(작가)	0.6	21	5.0	8	13
약제사	0.6	21	2.5	15.5	5.5
은행원	0.6	21	5.9	5	16
경찰	0.3	23	1.8	18.5	4.5
기타	2.7		2.2		
무응답	1.0		0.5		
계	100.0		100.0		
N	1,421		1,526		

따라서 이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상류지향성, 또는 강한 지위상승열망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선호는 응답자 본인의 직업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첫째로 직업의 대분류에서 구획된 직종은 자기 자기 직종에 대한 선호를 일차적으로 보인다. 가령 아들이 농사짓기를 원하는 이는 주로 농민, 장사하기를 원하는 이는 주로 상인(판매, 서비스직), 기술자 되기를 바라는 이는 생산직, 관리직은 관리직, 전문직은 전문직 등을 특히 선호한다. 둘째, 그러나 전문직과 관리직에서는 거의 하위직보다는 고위직 전문·기술·관리

〈표 2〉 직업별 아들 희망직업(교육연구) (%)

아들희망직업	본인직업	농어업 판매, 서비스 생산적 사무직 전문기술직 관리직 전문직								계 N
		농민	상인	기술자	판매원	사무직	전문기술직	관리직	전문직	
농	민	2.9	—	—	0.5	—	—	1.2	1.2 (15)	
상	인	0.9	1.5	1.25	0.5	1.8	—	—	0.8 (11)	
기	술	11.5	6.5	7.50	2.4	2.8	1.8	1.2	6.4 (83)	
은	행	1.3	2.0	—	0.5	0.9	—	—	0.9 (12)	
경	찰	0.9	—	—	—	—	—	—	0.3 (4)	
군	장	5.1	5.5	2.50	2.9	2.8	3.0	—	3.9 (50)	
엔	지	3.1	5.0	2.50	3.9	6.5	4.7	7.4	4.2 (55)	
교	니	6.2	3.0	1.25	0.5	0.9	0.6	—	2.9 (38)	
예	술	0.4	1.0	—	—	0.9	—	3.7	0.6 (8)	
언	론	1.8	1.5	—	1.0	—	—	1.2	1.1 (14)	
약	제	0.2	1.5	—	1.0	—	—	1.2	0.5 (7)	
체	육	1.8	—	1.25	0.5	0.9	1.8	—	1.1 (14)	
기	업	7.5	11.0	13.75	8.3	9.2	17.8	8.6	10.1 (131)	
고	급	13.9	8.0	8.75	8.3	8.3	2.4	—	9.0 (116)	
사	회	4.0	3.0	2.50	2.4	—	3.6	4.9	3.2 (41)	
과	학	3.3	3.5	3.75	8.8	6.5	5.3	7.4	5.0 (65)	
의	교	7.3	13.0	18.75	19.5	18.5	16.6	17.3	13.6 (176)	
변	수	6.2	9.0	15.00	17.6	15.7	16.6	19.8	12.0 (155)	
판	호	1.8	2.0	1.25	1.0	3.7	3.0	1.2	1.9 (25)	
외	사	10.0	8.5	8.75	13.6	11.1	9.5	4.9	10.0 (129)	
정	교	2.4	5.0	5.00	3.9	5.6	7.7	8.6	4.6 (59)	
성	관	5.8	8.0	3.75	2.4	2.8	5.3	3.7	5.0 (65)	
직	가	1.8	1.5	2.50	0.5	0.9	0.6	7.4	1.7 (22)	
직	자	100.1	100.0	100.0	100.0	99.8	100.3	99.7	100.0	
계	N	(452)	(200)	(80)	(205)	(108)	(169)	(81)	(1,295)	

 $\chi^2$ 검사  $p < .05$ 

직으로 치우치는 반면, 하위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기술자, 장교, 교사, 고급공무원, 정치가와 같은 몇 가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높다. 이러한 두 가지 성향도 기대할 수 있는 현상인가 한다.

다시 〈표 1〉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자신의 희망직업을 보면, 성인(부모들)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선호유형을 볼 수 있다. 먼저 성인의 인기 직종인 고위전문직(의사, 교수, 법조인 등)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은 편이고, 반대로 성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예술가, 교사, 사회사업가, 은행원 등의 순위가 비교적 높다. 한편 기업경영자나 고급공무원, 엔지니어, 농민과 상인 등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에는 별 차이가 없이 관리직,

기술직은 좋아하고 농업, 상업직은 역시 희망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이상적인 직업관과 성인들의 현실적인 직업관 사이의 격차가 한 가지 지적할 만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시대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종래의 전통적 직업관에서는 실업가의 위광이나 그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성인, 청소년 다같이 이를 열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여전히 화이트 칼러 선호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자료만 더 소개하려니와, 그것은 직업 성취에 필요한 한 교육정도 즉 학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어떤 직업의 계급적 지위가 교육이라는 市場能力의 한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앞의 글에서 지적하였고, 또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자료도 분석해 보아 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사회와 같이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전통적으로 이어 온 사회에서는 직업의 위광이 그 직업이 요구하는 학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은 쉽사리 기대해 볼 만하다.

〈표 3〉에서 보듯이, 역시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게 희망하는 직업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요하는지에 관해 뚜렷한 식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식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직업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에 필요한 교육정도 또한 비례하여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학력과 직업과의 밀접한 관계는 비단 객관적 현상으로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에서도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職業選好와 관련된 價值意識**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선호나 열망을 가진 것이 좀더 일반적인 삶의 가치와 특별한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겠다. 이와 상관있는 자료는 교육연구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자녀가 장차 어떤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가 하는 일과 관련있는 가치지향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적에 대한 견해이다.

우선 〈표 4〉의 맨 아래 줄을 보면, 자녀가 장차 좋아하기 원하는 가치 있는 일로는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돋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 으뜸으로 29.7%를 차지한다. 이어 「학식을 넓히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25.7%로 상당히 높다. 그 다음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19.5%이고 이와 비슷한 18.8%는 「재산을 모으고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표 3〉 아들 희망직업과 그에 필요한 학력(교육연구) (%)

아들희망직업	희망직업에 필요한 학력					계	N
		중고등학교	전문초급학	4년제학	대학원상		
농민	(5)	—	(10)	—	—	(15)	
상인	(3)	—	(10)	—	—	(13)	
기술자	29.1	25.6	40.7	4.6	100.0	(86)	
은행원	(1)	(2)	(8)	(1)	—	(12)	
경찰관	—	—	(4)	—	—	(4)	
군장교	13.0	9.3	70.4	7.4	100.1	(54)	
엔지니어	1.7	12.1	65.5	20.7	100.0	(58)	
교사	4.9	14.6	73.2	7.3	100.0	(41)	
예술가	—	—	(6)	(2)	—	(8)	
언론인	—	—	(14)	(1)	—	(15)	
약제사	—	—	(8)	(1)	—	(9)	
체육인	(1)	—	(14)	(2)	—	(17)	
기업가	2.9	2.9	77.4	16.8	100.0	(137)	
고급공무원	3.4	2.5	83.0	11.0	99.9	(118)	
사회사업가	2.2	8.7	71.7	17.4	100.0	(46)	
과학자	1.5	9.0	32.8	56.7	100.0	(67)	
의사	—	.6	44.8	54.7	100.0	(181)	
교수	.6	.6	25.6	73.2	100.0	(164)	
변호사	3.8	—	38.5	57.7	100.0	(26)	
판검사	.7	.7	59.7	38.8	99.9	(134)	
외교관	—	—	39.7	60.3	100.0	(63)	
정치가	1.4	4.3	49.3	44.9	99.9	(69)	
성직자	—	(2)	(13)	(8)	—	(23)	
계	4.3	4.9	55.8	34.9	99.9		
N=	(59)	(67)	(759)	(475)			(1,360)

$\chi^2$  검사  $p < .05$

일]이다. 나머지는 신앙과 선교(3.6%), 예술창작과 문화발전(2.6%)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부문별로는 사회봉사, 학문,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순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지향은 자녀(아들)에게 바라는 희망직업에 얼마나 유의미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표에다 표시를 한대로 '그런 가치는 직업선흐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봉사를 강조한 이들이 좋아하는 직업 가운데는 의사법조인, 사회사업가, 교사 등이 들어있고, 학문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확실히 교수, 의사, 과학자가 선호의 대상이다. 축제와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업가, 고급공무원, 엔지니어, 상인을 권장하고, 정치와 지도자적

〈표 4〉 가치 있는 일과 직업선흐(교육연구)

(%)

자녀가 종사하기 원하는 가치있는 일	아동희망직업	학식, 축제, 신앙, 지도자, 예술창 작, 문화 발전						계	N
		사회봉사 구	친리탐 진	경제발 전	선교	정치 작	문화 발전		
동민	1.0	.6	1.2	6.1	1.1	—	—	1.1	(15)
상인	1.0	.9	1.6	2.0	.4	—	—	1.0	(13)
기술자	6.6	4.0	7.0	6.1	8.3	5.6	—	6.3	(86)
은행원	2.2	.3	.4	—	.4	—	—	.9	(12)
경찰관	.2	.3	.8	—	—	—	—	.3	(4)
군장교	3.7	3.2	2.7	4.1	7.2	2.8	—	4.0	(54)
엔지니어	3.7	4.3	7.8	2.0	2.3	2.8	—	4.3	(58)
교사	3.7	3.2	2.7	2.0	2.3	2.8	—	3.0	(41)
예술가	.5	.6	—	—	.4	8.3	—	.6	(8)
언론인	1.5	1.1	.4	—	.8	5.6	—	1.1	(15)
약제사	.5	.3	1.6	2.0	.4	—	—	.7	(9)
체육인	1.5	.6	2.0	—	.4	8.3	—	1.2	(17)
기업가	7.4	8.3	19.6	10.2	6.0	13.9	—	9.9	(135)
고급공무원	8.4	4.0	10.6	4.1	15.1	8.3	—	8.8	(120)
사회사업가	5.2	3.2	2.7	4.1	1.5	2.8	—	3.4	(46)
과학자	3.5	8.9	3.5	—	3.8	5.6	—	4.9	(66)
의사	17.3	15.2	12.2	8.2	7.2	8.3	—	13.2	(180)
교수	10.1	21.2	8.2	10.2	7.9	5.6	—	12.1	(164)
변호사	2.2	2.0	1.2	2.0	2.3	—	—	1.9	(26)
판검사	11.1	10.3	6.3	2.0	12.1	11.1	—	9.9	(134)
외교관	3.2	4.9	4.7	2.0	6.4	8.3	—	4.6	(63)
정치가	4.0	2.3	3.1	2.0	13.6	—	—	5.1	(69)
성직자	1.2	.6	—	30.6	.4	—	—	1.7	(23)
계	99.7	100.3	100.3	99.7	100.3	100.1	100.0	100.0	
N	(404)	(349)	(255)	(49)	(265)	(36)	—	—	(1,358)
	29.7	25.7	18.8	3.6	19.5	2.6	99.9	99.9	

 $\chi^2$  검사  $p < .05$ 

자질을 소중히 보는 경우와는 역시 고급공무원, 정치가, 판검사, 군장교, 외교관 등을 우선 뽑는다. 종교부문에서는 성직자, 예술부문에서는 작가, 언론인, 체육인, 기업가 등이 지목 받는다. 결국, 사람들은 일과 관련된 삶의 가치를 직업선흐에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한 것이 된다.

그러면,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과 자녀를 위한 직업 열망과는 관계가 있는가? 〈표 5〉를 보자. 맨 아래에서 두번째 줄에 자녀교육의 주요목적별 백

〈표 5〉 자녀교육 목적과 직업선판(교육연구) (%)

아동회 망직업	자녀교육시키는 목적	직업	국가사회	존경받을	훌륭한	자기소	계	N
		준비	공헌인재	을지위	인격	질최대		
농민		1.6	.4	—	1.50	1.9	1.1	(15)
상인		1.6	1.4	—	.50	.8	1.0	(13)
기술자	기술자	12.0	7.4	6.6	4.00	5.4	6.4	(87)
은행원		—	1.0	1.3	.75	1.2	.9	(12)
경찰관		.8	.2	2.6	—	—	.3	(4)
군장교		2.4	5.8	1.3	3.25	3.1	4.0	(54)
엔지니어	엔지니어	9.6	2.6	2.6	3.25	7.0	4.2	(58)
*교사		4.8	2.8	1.3	2.75	3.5	3.0	(41)
예술가		—	.2	—	.50	1.9	.6	(8)
언론인		.8	.6	—	1.50	1.9	1.1	(15)
약제사		1.6	.8	1.3	.25	.4	.7	(9)
체육인		2.4	—	1.3	1.50	2.7	1.2	(17)
기업가		4.0	9.9	6.6	11.25	12.0	10.0	(136)
고급공무원		17.6	8.5	10.5	7.50	6.6	8.8	(120)
사회사업가		—	2.8	3.9	4.00	5.0	3.4	(46)
과학자		1.6	5.8	1.3	3.25	8.5	4.9	(67)
의사		12.8	12.5	17.1	13.50	13.6	13.3	(181)
교수		7.2	13.1	9.2	13.75	10.0	12.0	(163)
변호사		.8	2.6	—	2.00	1.6	1.9	(26)
판검교관	판검교관	12.0	10.1	21.0	9.75	5.4	9.9	(135)
정치가		3.2	3.2	7.9	6.25	4.6	4.6	(63)
성직자		3.2	6.4	3.9	6.50	1.6	5.1	(69)
계		—	2.0	—	2.50	1.1	1.7	(23)
N		100.0	100.1	99.7	100.0	99.8	100.1	
(고등학생)		9.2	36.9	5.6	29.3	18.9	99.9	
		15.3	25.6	2.9	33.8	22.0	99.5	

 $\chi^2$  검사  $p < .05$ 

분비가 있다. 「국가와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고, 다음이 29.3%를 차지하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이다. 「자신이 가진 소질을 최대로 계발시키기 위하여」는 18.9%로 그 다음이고, 이어 「장차의 직업생활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존경받을 만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하여」가 각각 9.2%, 5.6%이다.

우선 여기서 제시된 가치를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눈다면, 개인주의 가치가 우세하고, 그것도 목적적, 표출적인 가치(인격, 소질)가 수

단적 가치(직업준비, 존경)를 암도한다. 그러나 단일 항목으로 보면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는 게 눈에 띈다. 이것을 참고로 고등학생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표 5>의 맨 아래 줄의 백분비에서 보듯이, 젊은이들에게는 사회보다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할 뿐 아니라, 개인적 가치 가운데에서도 표출적 가치가 월등히 암도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세대 차이와 시대적 변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교육목표 가치는 직업선희에도 의미있게 반영되고 있음이 이 자료에서 드러났다. 편의를 위해 표에다 표시를 한 것을 보면, 우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직업에는 교수, 정치가, 군인, 과학자가 두드러진다. 개인적 표출적 가치로서 인격도야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교수, 정치가, 외교관, 성직자 등을 주로 꼽는다. 소질계 발이라는 개인적 표출적 가치를 귀히 여기는 이들은 기업가,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 사회사업가 같은 직업이 좋다고 한다. 직업준비가치가 잘 반영된 직업들은 고급공무원, 판검사, 기술자, 엔지니어, 교사 등이다.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들은 판검사, 의사, 고급공무원, 외교관, 경찰을 꼽는다. 이 모두가 상당히 현실성이 강한 상관관계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이상에서 우리는 태도자료를 바탕삼아, 한국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지위, 시장능력, 영향력 등이 높은 것들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러한 직업선희는 단순한 일차원적 선호가 아니라 좀더 기본되는 가치의식의 반영임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일과 교육의 목적에 관련된 가치지향은 직업선희에 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3. 職業에 대한 認知와 社會構造

직업이 그만큼 가치와 적결되는 사회현상이라면 그런 직업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걸맞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직업들을 사람들이 선호할 때는 그것들이 자기네의 삶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또 그런 중요성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차등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거니와, 그렇다면 그에 적절한 사회적 공헌을 하든가, 경제력과 권력과

지위의 특전에 걸맞는 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회에는 있다.

과거에 우리가 실시한 연구(김경동, 이해영 1970; 김경동, 1979)에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직업의 경제적 보상(수입)과 사회적 보상(위광)은 그것이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것과 상관도가 높은지를 분석한 일이 있다. 이전의 이같은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수입과 지위(또는 위세)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소득과 경제에 대한 공헌도, 위광과 공헌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든가 아니면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주의적 계층이론을 경험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Kim, 1978b).

이와 같은 연구에서 우리가 유추하고자 한 것은 사회구조의 한 면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직업에 대한 보상과 그 사회적 공헌이 서로 어긋난다면 이는公正치 못한 사회의機會構造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 것이다. 경험적 자료는, 기회구조의 불공정함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증해 주었던 것이다. 이번의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인지를 통하여 사회구조의 단면을 파악해 보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여기에 보고하는 「사회발전연구」 자료는 직업에 대한 보상과 그것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기회구조 인식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그리 구체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못하였던 직업과 권력을 들러싼 인지구조에서 그것이 반영한다고 보이는 사회구조의 일면을 읽어 보려 하였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주요한 직업들을 크게 묶어서 職業群으로 범주화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信任度 내지 不信度를 알아 보았다. 아울러 그 각기의 직업군은 이 사회에서 「얼마만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지나 않는가 하는 부당한 영향력의 배분(즉 influence misallocation)의 인식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직업군에서는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부폐, 부조리를 얼마나 자행하는가?」 하는 데 대한 국민의 인지를 포착하려 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를 추적하기 위한 접근으로서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정한 기회구조가 제대로 잡힌 사회라면, 경제적 보상, 사회적 위광, 정치적 권력행사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삶의 가

치에서 소중한 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선호받는 직업들은, 그에 걸맞게 사회의 신임도가 돈독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부패의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회경제적으로 보상이나 특전이 덜한 직업에서는 그와 같은 기대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또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특전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특전이 주어진 직업군에 대한 불신이 크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게 되고 부조리가 자심하다는 생각이 짙을수록 그 사회는 기회구조면에서 불공정하고, 따라서 問題性이 짙다는 유추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로 시민들의 관심대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18개 직업군을 선택하여 신임도(불신도), 부당영향력 행사, 및 부조리 정도를 각각 분석하였다.

### 1) 각계각층 직업에 대한 신임도와 불신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할 때 사회적 불신의 풍조를 자주 지적한다. 이러한 불신풍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것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근자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취급하는 항목이다. 그 원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해설이 가능하겠지만 이번 조사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직업군을 중심으로 응답자들 생각에 그 중 어떤 직업들은 더 「믿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를 알아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신임도와 불신도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대체로 믿을 만하다」는 응답지와,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응답지를 주었다.

신임, 불신도의 평가 대상 직업군으로는 국회의원, 고위직공무원, 공무원, 경찰관, 재벌, 중소기업가, 판검사, 언론인, 종교인, 초·중·고 교사, 의사, 대학교수, 대학생, 은행원(농협직원), 근로자, 세무공무원, 군장교 및 상인의 18개를 채택하였다.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른 직업군도 있을 것이고 또 주어진 직업의 종류도 일반적 직업범주가 있는가 하면,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경우도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만 종래의 다른 조사와 일상적인 직업군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편의상 18개로 한정시켰다.

각 직업군의 신임도 측정을 위해서는 우선 「신임도 종합지수」(the aggregate index of credibility)를 구성하였다. 위에서 예시한 네 가지 응답지 가운데, 긍정적인 두 개 응답지에 대답한 응답자의 %로부터 부정적인 두 개 응답지에 대답한 응답자의 %를 뺀 값이 「신임도 종합지수」가 되는 셈이다. 이 지수의 값은 -100에서 +100에 이르는 범위를 가졌으며, -100인 경우에는 응답자 전부가 믿지 못한다는 「불신도」의 절정을 뜻하고, +100이란 모든 응답자가 믿을 수 있다고 보는 「신임도」의 절정을 나타내는 값이다.

〈표 6〉에 이런 절차로 얻은 신임도 지수를 각 직업군별로 그 크기의 순위로 제시하였다. 이번 조사연구에 참여한 응답자가 대표하는 국민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로 그 신임도 지수가 50%이상인 경우는 대학교수(76.0), 교사(74.1), 근로자(64.3), 군장교(56.7), 그리고 은행원(5.8)이다.

관검사, 대학생은 50에 가까운 지수값을 얻고 있고, 의사, 공무원이 40을 약간 상회하는 신임도 점수를 획득한 보기들이다.

반대로 신임도 지수의 값이 부(-)의 값을 떠으로써 불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직업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재벌이 -55.0으로 으뜸이고, 상인(-41.7)이 이에 접근하며, 다음으로 중소기업가와 세무공무원이 -9 수준이다. 지수값은 비록 (-)가 아니지만 30점 이하인 경우는 14.6%의 국회의원, 경찰관, 종교인, 정부의 고위직공무원 등이고, 언론인은 한계점인 31.6의 지수값을 얻은 정도이다.

여기서 간추릴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이러하다. 첫째, 교직자, 근로자, 직업 군인의 신임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자녀의 교육이라는 일부를 맡은 이들, 나라의 경제적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 국방 책임을 맡은 군인, 그리고 금융질서를 좌우하는 은행원에게 믿음을 걸 수 없다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은행원의 경우가 예외일 수는 있어도) 어떤 불신 받을 만한 이권과 직결되는 직업영역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참고로 이 연구는 최근의 금융부정 사건이 노출되기 전, 1981년에 실시한 것임을 알려 둔다.

둘째, 이와는 반대로 주로 경제활동을 주도하거나 경제적 이권이 직접 개입하는 기업가, 상인, 세무공무원의 불신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이런 직업에 대한 전통적 관념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신을 받을 일들이

〈표 6〉 각계각층 직업군의 신임도 종합지수

	신임도(순위)	모 른 다 부응답(%)		신임도(순위)	모 른 다 부응답(%)
대 학 교 수	76.0 (1)	9.9	언 론 인	31.6(10)	10.4
교 사	74.1 (2)	3.1	고위직공무원	28.5(11)	13.8
근 로 자	64.3 (3)	7.0	종 교 인	27.3(12)	7.1
군 장 교	56.7 (4)	10.1	경 찰 관	24.8(13)	4.0
은 행 원	55.8 (5)	6.1	국 회 의 원	14.6(14)	7.4
판 검 사	49.6 (6)	10.0	세 무 서 원	-9.0(15)	8.9
대 학 생	47.4 (7)	8.2	중 소 기 업	-9.1(16)	13.5
의 사	44.0 (8)	2.9	상 인	-41.7(17)	5.7
공 무 원	40.3 (9)	4.9	재 벌	-55.0(18)	11.9

그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과열현상이 빚어내는 갖가지 경제부조리가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셋째로, 판검사, 의사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맡은 이들과, 언론인, 종교인 등의 문화부문의 직업들에게 큰 신뢰감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은 문제로 지적 할 만한 일이며, 상하급 공무원, 정치인, 경찰관 등이 오히려 상대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 배경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1) 응답자의 특성과 신임·불신임 대상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각계의 직업군에 대하여 갖는 신임도와 불신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7〉과 같은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통계적 의미가 적은 것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차이를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대학교수와 교사에 대한 신임도는 나이에 따라서만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일반적인 경향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신임도가 더 두텁다. 이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경향임이 드러났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에 따른 신임도의 차이가 보이는데, 부산과 중소도시에서 그 정도가 높고 촌락민들 사이에서 가장 낮다.

군장교에 대한 신임도가 높은 층은 중소도시 이하, 특히 촌락 주민들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의사에 대한 신임도는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특히 높고 부산과 농촌 사람

들에게는 비교적 신임도가 낮다.

공무원은 중소도시 이하 주민들에게서 비교적 높은 신임을 받고 대도시에서는 그리 신뢰 받지 못하고, 학력이 낮은 층, 여자, 그리고 노년층에서 신임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학 이상 학력자들 사이에서는 신임도가 가장 낮다.

언론인의 신뢰도는 서울에서나 약간 높고 부산 시민에게는 불신도가 엿보인다.

정부의 고위직공무원은 중소도시 이하의 농민들과 40대 이상 장년층, 그리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신임도가 큰 편이나, 광주 시민들에게는 신뢰도지수가 0이고 고학력자들과 20대 이하 사람들도 비교적 신임도가 낮다.

종교인의 경우에는 광주와 중소도시 시민, 고소득, 고학력자에게서 비교적 신임받고 있지만, 촌락인, 저소득층, 저학력자들 사이에서는 신임도가 몹시 낮다.

경찰관의 신임도는 원래 낮은 편이지만 특히 서울 사람, 고소득층, 2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서 더 낮고, 대학 졸업자들은 심지어 불신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신임도 또한 몹시 낮은 것을 보았는데, 대도시인, 고소득층, 고학력자, 여자, 20대 이하 젊은층이 더욱 불신하는 성향을 보인다.

세무공무원을 상대적으로 더 불신하는 사람들은 대도시인, 고학력자, 고소득층 그리고 30대로 나타난다.

상인의 경우에는 농민에게서 더 크게 불신받고 있으며, 재벌은 학력이 높은 이들과 젊은 층에서 더 큰 불신의 적이 되고 있다.

요컨대, 학력과 나이 같은 요인이 우선 신임도나 불신도를 강하게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하며 응답자의 배경이나 특성과 관련된 대상들의 경우 그 태도가 더욱 뚜렷하다는 일반적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응답자의 직업별로 직업군의 신임도 평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 직업군들만 따로 골라서 직업분류에서와 비슷한 직종의 순서로 배열을 바꾸어 보았다. 그 결과 두드러진 현상 몇 가지만 지적해 본다. 첫째,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상인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표 7〉 응답자의 특성과 신임도 지수

	대 학교수	교사	근로자	군장교	은행원	판검사	대학생	의사
거주지								
서울	86.0	79.2	63.0*	59.2*	64.2	62.0	49.8	55.8*
부산	80.4	68.0	80.2	55.2	59.4	45.0	56.4	32.0
광주	83.4	68.0	67.8	44.8	50.0	37.8	58.8	78.4
중소도시	87.8	82.0	80.1	71.6	69.6	65.8	45.4	59.4
읍	83.6	70.4	70.4	60.8	57.6	55.2	52.8	27.4
촌락	83.0	77.0	59.4	72.8	50.4	49.2	52.6	39.0
소득								
10만 원 미만	79.2	74.4	62.2	67.6	56.6	54.2	56.6	36.8
10~20만 원	83.4	74.8	72.2	68.2	59.6	52.2	54.4	45.6
20~30만 원	83.6	74.0	71.0	63.0	70.0	55.4	52.4	45.8
30~50만 원	88.4	79.6	68.8	52.4	51.0	53.6	48.6	48.8
50만 원 이상	89.2	80.4	70.0	62.8	61.0	60.4	47.2	42.2
교육								
국제미만	91.4	85.8	70.8	68.4	53.8	46.8	74.2	46.0
국졸	82.6	75.6	62.5	65.6	65.6	48.6	52.2	40.2
중학교	78.0	73.8	71.0	60.6	66.2	55.6	52.4	44.0
고등학교	83.0	71.8	70.4	65.0	54.4	64.6	44.8	43.2
대학이사	91.8	83.6	71.8	57.0	55.4	49.0	49.8	57.4
성별								
남자	86.0	78.6	70.6	65.2	59.6	57.6	51.4	37.8
여자	82.0	73.6	67.0	60.0	59.4	52.0	51.8	55.4
연령								
20대 이하	80.8*	73.6*	68.2	53.2*	57.8	57.2	39.8*	54.5*
30대	82.6	72.4	72.2	60.4	60.4	46.4	57.8	39.4
40대	86.6	71.4	63.6	70.0	60.8	53.0	54.8	29.8
50대 이상	89.2	91.2	72.8	74.2	60.3	63.6	60.2	53.6

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에 비금간다. 그러나 이들도 자기네와 비슷한 업종의 직업군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임을 면치 못한다.

둘째로, 편파적으로 자기네 직업과 다르거나 지위가 낮은 직종에 대해 불신도가 비교적 크거나 신임도가 낮은, 비판적인 사람들은 주로 전문직(고위)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 성향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눈에 띈다.

상인은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가장 덜 불신한다. 하위공무원은 사무직과 농민이 가장 신임한다. 세무공무원은 농민의 신임이 가장 두텁고, 생산직과 관리직 종사자들이 동정하는 편이다. 경찰관은 생산직, 하

공무원	언론인	고위직 공무원	종교인	경찰관	국회의원	세무서원	증소기 업자	상인	제 biến
27.8*	50.2*	24.6*	36.2*	17.2*	1.4*	-32.0*	-8.6	-40.2*	-64.4
37.5	12.0	14.6	19.2	8.4	-9.0	-26.4	-6.2	-43.6	-81.6
41.6	23.4	0.0	50.0	21.2	-8.0	-30.2	15.2	-21.8	-40.0
53.6	40.0	44.8	48.2	30.8	24.8	9.8	-1.0	-34.4	-54.4
51.8	34.2	38.8	23.8	32.6	27.0	-5.0	-15.4	-50.4	-57.2
43.8	32.2	49.8	10.6	37.4	36.0	11.4	-25.2	-56.8	-66.0
39.2	38.8	38.2	12.0*	36.4*	33.4*	7.6*	-19.2	-51.0	-56.2
44.6	38.2	36.0	31.2	27.4	19.6	3.0	-7.2	-43.6	-64.0
43.8	41.0	35.4	26.6	29.0	24.6	-12.6	-14.2	-44.8	-63.8
42.2	27.8	28.8	38.2	23.6	5.2	-25.4	-3.6	-36.2	-62.6
38.0	47.0	16.0	28.8	4.4	-17.9	-40.6	-10.0	-48.0	-66.4
45.4*	37.0	42.0*	12.0*	47.4*	25.8*	23.8*	-13.6	-38.4	-33.4*
46.4	42.2	43.2	15.8	35.4	41.6	-4.8	-5.2	-50.0	-63.4
49.2	39.0	44.2	23.2	35.8	31.8	-6.2	-13.8	-42.2	-57.8
45.0	35.0	27.8	39.2	20.8	0.8	-10.6	-18.0	-41.0	-72.0
21.0	24.0	14.2	43.8	3.2	-13.0	-36.4	-2.8	-48.4	-64.6
41.8*	33.2	34.0	27.0	24.6	20.6*	-9.0	-11.6	-45.4	-59.6
43.4	38.0	31.6	32.6	27.6	9.0	-11.2	-9.2	-42.6	-66.2
30.6*	31.8	20.0*	29.6	3.0*	-1.6*	-8.4	-5.8	-38.2	-69.4*
48.6	36.0	31.4	23.0	28.4	8.4	-20.6	-11.4	-43.0	-63.8
43.6	32.8	40.8	31.8	34.6	28.8	-9.2	-22.6	-53.6	-61.2
53.2	42.8	46.8	33.6	50.4	37.2	-1.2	-6.0	-45.2	-50.6

\*통계적 유의도  $p < .05$

위, 고위전문직 종사자들의 불신을 제일 받는다. 언론인은 사무직, 하위전문직, 관리직의 불신을 더 받는 편이다. 평균보다는 높은 신임도(또는 낮은 불신도)를 보인다. 그들의 소박성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다. 과거 같으면 정보수준(level of information)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을 법하지만, 요즘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관리직 종사자들도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신임하는 직업군이 더 많다.

셋째, 불신도가 높거나 신임도가 낮은 쪽으로는 전문기술직이 으뜸이고 교사에 대한 신임도가 낮은 경우는 판매·서비스직이다. 관리직, 생산직,

〈표 8〉 직업별 직군의 신임도 평가지수(사회발전연구)

응답자직업 직업군	농어 업적	판매 서비스 직	생산적 직	사무 직	전문 기술 직	관리적 직	전문 직	평균 유의도
상인	-56.6	-26.6	-22.2	-47.2	-44.0	-45.0	53.9	-41.7 ***
하위공무원	50.4	41.7	39.6	58.8	20.9	30.0	33.4	40.3 *
세무공무원	10.8	-13.8	-5.3	-13.2	-50.0	-5.0	.0	-9.0 *
경찰관	42.9	28.4	25.8	27.1	-12.0	36.6	20.0	24.8 **
언론인	40.2	39.2	44.9	19.6	24.9	30.0	52.0	31.6 *
교사	82.6	69.6	83.6	73.1	76.4	90.3	84.0	74.1 **
중소기업가	-18.4	-6.0	.0	-26.6	-31.9	38.0	-12.0	-9.1 *
재벌	-48.1	-61.4	-64.8	-70.3	-92.0	-43.6	-47.8	-55.0 **
고위직공무원	53.0	22.9	17.2	48.0	31.9	40.0	20.0	28.5 *
국회의원	43.1	12.4	19.2	16.2	2.0	28.2	-36.0	14.6 ***
판검사	62.0	64.7	34.5	66.6	60.0	53.8	69.3	49.6 *

유의도 수준 \* p<.05, \*\* p<.01, \*\*\* p<.001.

판매·서비스직 같이 기업과 관련있는 직종의 사람들이 그래도 중소기업가를 덜 불신한다. 재벌의 불신은 고위직과 농어업직에서만 덜하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신임도가 낮은 사람들은 직위가 아주 낮은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아니면 아주 높은 고위전문직 종사자들이다. 국회의원도 판매·서비스직 및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더 불신 받고 있다. 판검사에 대한 신임도가 낮은 경우는 생산직에 국한된다.

이처럼 자신의 직업에 따라 직업군의 신임—불신도가 다르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기대할 만한 사실이지만,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사회의 각 부문이 서로를 믿는 마음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서로 이해 관심이 다른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소한도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풍토는 이룩되어 있는 게 마땅하고, 거기서 생기는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2) 불신의 편재성

그러면, 사회적 불신이 과연 얼마나 널리 퍼진 현상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18개 직업군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응답지에 표시한 응답자만을 계산했을 때 대체로 그 중 몇 개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따져 보았다. 다시 말해서 불신의 대상으로 지적된 직업군의 수를 세어 본 것이다. 그 결과는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표 9〉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직업군의 수의 분포

직업군의 수	지목된 빈도	%	직업군의 수	지목된 빈도	%
0(한가지도 없는 경우)	53	6.5	10	50	6.1
1	47	5.7	11	32	3.9
2	52	6.3	12	34	4.1
3	69	8.4	13	12	1.5
4	82	10.0	14	13	1.6
5	84	10.2	15	10	1.2
6	84	10.2	16	3	0.4
7	70	8.5	17	4	0.5
8	62	7.6	18 (전부 지목한경우)	2	0.2
9	57	7.0		820	100.0

평균치 = 6.1

표준편차 = 3.8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이 불신을 표명한 대상으로 지목된 직업군의 수는 6.1이다. 18개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인 셈이다. 가장 빈번히 지목된 수는 5개, 6개, 4개이고, 다음으로 7개, 3개, 8개, 9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본 것이 〈표 10〉에 나타난 결과와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의 대도시 주민, 30대 이하의 젊은이(특히 20대)에서 가장 불신하는 대상수가 많고, 통계적 차이로는 의미가 적으나 고학력자, 고소득층에서도 불신풍조가 상대적으로 널리 퍼진 셈이다.

끝으로 한 가지, 뒤에 분석하거나 후속 조사연구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국민의 불신도를 측정하는 복합 지수의 계산법을 소개하고 지나가겠다. 이 지수의 값은 0에서 100에 이르는 것으로 0이란 모든 사람(응답자)이 주어진 대상 중 하나도 불신을 나타내지 않은 값이고 100이란 100% 전부가 직업군을 불신하는 값을 뜻한다.

$$CID = \sum_{i=1}^{18} PDi(Di/Ti \times 100)$$

여기서  $PDi$ 란 i번째 직업군을 불신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0~1)

$Di$ 란, 불신의 대상이 되는 i번째의 직업군(1~18)

$Ti$ 란, 신임의 대상이 되는 i번째의 직업군(1~18)

$CID$ 란 불신 복합지수(the Composite Index of Distrust)

이 공식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는 1981년의 표본이 불신하는 정도를 나타

〈표 10〉 응답자 특성별 불신 대상수

특 성			불신대상수	특 성			불신대상수
거 주 지				10~20	만 원		5.9
서 울			6.0*	20~30	만 원		5.9
부 산			6.9	30~50	만 원		6.1
광 주			5.8	50 만 원 이	상		6.6
중 소 도 시			5.4	적	업		
읍			6.1	농 어	업		5.9
촌	락		6.1	생 산	적		5.9
성	별			사 무	적		5.8
남 자			6.2	전 문 기	술	적	7.8
여 자			6.0	관 리	적		6.5
나 이				대 도	시		
20 대 이 하			6.5*	S E S—하			5.8
30 대			6.3	S E S—중			6.3
40 대			5.9	S E S—상			6.5
50 대 이 상			5.5	중 소 도 시			
학 력				S E S—하			5.9
국 졸 미 만			5.8	S E S—중			5.2
국 졸	졸		5.7	S E S—상			5.3
중 학 교			5.8	읍	면		
고 등 학 교			6.3	S E S—하			5.7
대 학 이 상			6.5	S E S—중			6.2
소 득				S E S—상			6.6
10 만 원 이 하			6.3				

\* 통계적 유의도  $p < .05$ 

내는 33.8이 되고, 이는 100점 만점에 대하여 약 3분의 1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앞서 불신하는 대상의 평균치 6.1이 전체 18개 대상의 3분의 1과 같은 것이다. 이런 지수는 후에 반복 조사를 하거나 다른 조사 연구자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분석할 때를 위하여 측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어쨌든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의 편재성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만큼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셈이다.

오히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불신의 주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직업집단인가 하는 점에 있다. 그것은 주로 경제활동을 이끌어 가는 재벌, 중소기업가 및 상인이라는 사실과, 세무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에서 더욱 심각하다.

덧붙여, 국회의원, 경찰관, 종교인, 고급공무원도 대단한 신임을 못받는다

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각계각층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태도

이제부터 제시하려는 자료는 바로 위에서 살펴 본 각계층의 직업군이 실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사회적 불신의 표적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인식된다면, 이는 사회질서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같은 18개 직업군에 대하여 국민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 행사의 정도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 것이다.

질문의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18개의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지나치게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너무 영향력이 적은지, 아니면 적당한지」를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응답자는 영향력이 「너무 많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는 세 개로 주어졌다.

이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당 영향력 지수」(the index of influence misallocation)라는 것을 측정, 비교하기로 하였다. 이 지수는 영향력이 「너무 많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에서 「너무 적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를 뺀 값으로 쟁다. 「적당하다」는 대답은 일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거기에는 영향력 배당에 부당성이 게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수의 값은 -100에서 +100의 범위를 갖는다. +100이란 응답자 전체가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 영향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100은 반대로 전체응답자들 생각에 이들이 너무 적은 영향력을 누린다는 말이 된다. 지수 값이 0이 나오면 알맞은 영향력 행사를 하는 직업군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표 11〉에는 이렇게 얻은 지수 값이 각 직업군 별로 나와, 그 크기에 따라 순서로 나열한 것이 보인다. 우선 주목할 것은, 「부당 영향력 지수」가 일반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100을 기준으로 하면 45.4가 가장 높고 -45.3이 가장 낮은 것은, 「모른다」와 「무응답」의 %가 높은 테다 「적당하다」는 응답률이 다른 어느 응답자보다 가장 높은 테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각 직업군의 상대적 부당 영향력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분석의 편의상 이 지수를 가지고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11〉 각계각층 직업군의 상대적 영향력

	부당영향 력 지수 (순위)	모른다 무응답 (%)		부당영향 력 지수 (순위)	모른다 무응답 (%)
재 벌	45.4 (1)	15.2	공 무 원	-2.3 (10)	9.1
고위직공무원	27.3 (2)	15.5	종 교 인	-3.1 (11)	14.2
국 회 의 원	22.3 (3)	11.8	대 학 교 수	-3.5 (12)	13.9
판 검 사	19.8 (4)	13.7	언 론 인	-5.6 (13)	16.0
세 무 서 원	19.4 (5)	14.6	은 행 인	-5.7 (14)	11.9
군 장 교	17.9 (6)	14.9	대 학 생	-8.7 (15)	14.4
경 찰 관	8.0 (7)	8.7	상 인	-9.0 (16)	13.4
의 사	6.7 (8)	8.6	교 사	-17.3 (17)	7.0
중 소 기 업 주	-0.7 (9)	18.9	근 로 자	-45.3 (18)	9.8

가장 눈에 띄게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받는 사람들은 재벌(45.4)을 으뜸으로 하여, 정부의 고위직공무원(27.3), 국회의원(22.3), 판검사(19.8), 세무공무원(19.4) 그리고 군장교(17.9) 등이다. 이들의 「부당 영향력 지수」는 모두 10점 이상이다. 경찰관의 점수가 8.0으로 이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으뜸인 경우는 근로자(-45.3)와 교사(-17.3)로서 모두 -10점 이하의 직업군이다. -10점 가까운 보기로는 상인(-9.0)과 대학생(-8.7)이 있다. 그 밖에 의사, 중소기업주, 공무원, 종교인, 교수, 언론인, 은행원 등은 0에 가까운 점수를 얻고 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면, 재벌은 너무 지나친 영향력을 소지하는데 반하여 그들이 고용하여 가장 회생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너무도 힘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부의 배분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균형에 덧붙여서 사회적 힘(power)의 배분 또한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힘의 공정한 배분도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 더욱 절실히 전해진다 하겠다.

개다가 뒤에서 더 자세히 분석·검토하려니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가운데는 사회적인 불신도가 높은 대상도 끼어 있고, 신임도가 높은 이들 중에는 영향력이 너무 적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응답자의 특성별 「부당 영향력」 행사에 대한 태도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자

〈표 12〉 응답자의 특성별 「부당 영향력 지수」의 비교

	재벌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세무서원	군장교	경찰관	의사
거주지								
서울	64.1*	42.9	32.2	25.6	27.1	28.7	8.3	5.5*
부산	63.1	41.4	32.4	26.0	31.9	27.5	16.8	15.4
광주	32.2	21.7	1.6	15.7	15.2	18.6	4.7	3.2
중소도시	56.6	30.5	29.6	21.0	18.3	16.0	7.4	2.2
읍	45.8	28.9	21.5	20.7	24.2	16.4	11.3	11.3
촌락	44.7	20.9	20.4	23.3	15.5	16.6	3.7	5.6
소득								
10만원미만	52.2*	35.8	31.2	17.6	19.5	21.4	8.1	8.3
10~20만원	43.6	28.2	23.5	23.3	22.5	17.9	10.7	10.9
20~30만원	51.1	33.0	24.2	26.9	21.7	22.2	9.7	9.0
40~50만원	64.8	30.7	25.4	26.3	23.2	23.7	7.6	4.4
50만원이상	46.8	36.6	20.0	19.8	30.2	21.6	8.5	1.5
교육								
국립미만	48.8*	44.3*	34.1*	29.1	20.9*	36.2*	11.4*	11.3*
국립	48.2	29.8	27.7	24.8	17.6	25.0	6.2	18.3
중학교	45.4	24.9	25.4	15.3	23.5	16.4	0.4	2.1
고등학교	53.2	30.1	21.7	24.0	17.2	14.1	9.7	5.4
대학이상	72.6	40.6	26.2	24.4	38.2	27.6	18.4	2.1
연령								
20대이하	49.7*	29.3	24.0	17.8*	20.1	20.7	11.5	11.8
30대	57.3	35.3	27.8	27.1	32.1	24.4	9.4	12.7
40대	53.0	31.5	24.1	17.6	23.8	18.0	3.7	16.9
50대	56.1	34.1	25.8	31.2	15.7	20.8	9.2	6.8
성별								
남자	54.8	31.6	21.0*	22.3	24.6	16.0*	10.1	3.1*
여자	51.8	33.1	31.4	23.9	20.2	28.3	7.2	13.1

료는 〈표 12〉에 모아 두었다. 이 경우에는 개개의 직업군을 따로 해설하지 않고도 일반적 경향을 가려낼 수 있으므로 요약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i) 재벌, 고위직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세무공무원, 군장교, 경찰관 등 부당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도시인, 고학력자, 고소득층, 20대 이하 젊은이들, 그리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ii) 중소기업인, 교수, 언론인, 은행원, 대학생, 교사,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도시인,

중소기업	공무원	종교인	대학교수	언론인	은행원	대학생	상인	교사	근로자
-8.7	-3.0	-2.6	-11.3	-13.5*	-11.2	-19.9	-11.8	-27.5	-27.5
-1.5	2.8	.7	-7.7	-10.0	-12.5	-11.5	-19.0	-21.6	-21.6
-15.0	-11.1	-8.3	1.6	-26.7	-1.7	-14.3	-23.7	-21.5	-21.5
9.0	-3.4	-4.1	-1.7	-0.5	-8.8	-1.8	-17.9	-13.8	-13.8
8.6	-0.9	-5.7	-2.4	-6.7	-4.3	-9.3	-0.9	-18.1	-18.1
-3.6	-3.7	-4.0	3.1	5.8	-4.7	-3.1	-1.9	-9.6	-9.6
8.6*	1.8	4.3	6.4*	5.3	2.8*	-2.6*	1.8*	-6.9*	-6.9*
1.1	2.6	-2.4	0.6	-5.9	-2.6	-7.3	-2.7	-13.3	-13.3
-3.2	-6.7	-7.1	-4.5	-7.2	-10.6	-3.5	-13.9	-16.8	-16.8
-2.6	-6.3	-7.5	-11.4	-10.7	-10.7	-22.4	-18.1	-23.7	-23.7
-10.6	-1.5	-5.5	-15.5	-17.4	-15.8	-21.1	-30.0	-37.9	-37.9
15.8	3.9	4.5	2.4*	14.3*	4.4*	-1.3*	7.5*	-13.4	-13.4
2.9	0.4	-8.9	6.1	-1.5	-1.3	-7.0	-4.0	-6.7	-6.7
4.4	-4.2	2.8	0.5	-5.4	-5.7	-4.6	-6.3	-14.0	-14.0
-1.9	-5.8	-6.5	-4.7	-11.1	-12.6	-8.9	-19.6	-21.3	-21.3
-15.5	-1.6	-4.3	-22.0	-14.9	-7.7	-27.0	-16.0	-36.4	-36.4
-5.5	-6.4	-7.9	-9.1	-18.6*	-11.8*	-15.3*	-18.1*	-24.7	-24.7
3.5	-6.0	4.1	-1.2	-8.4	-0.8	-5.3	-0.7	-16.8	-16.8
1.0	1.3	-5.2	-5.7	4.5	-8.1	-7.3	-8.0	-15.9	-15.9
-0.5	4.3	-3.0	2.7	3.4	-2.7	-10.2	-10.5	-14.2	-14.2
-1.6	0.6	-2.9	-9.1*	-3.2	-7.2	-11.1	-9.2	-21.8*	-21.8*
-0.3	-6.5	-7.5	3.2	-11.9	-5.5	-8.9	-11.9	-14.5	-14.5

\* 통계적 유의도  $p < .05$

고학력자, 고소득층, 20대 젊은이, 여성들이 더 큰 동정을 보이고 있다.

결국 대도시에 살면서 안목도 넓고 직접경험도 많은 사람들, 교육도 더 받아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깨끗한 사람들 중심으로, 불공정한 영향력의 배분이 문제로 부각받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에도 직업에 따른 부당 영향력 행사 인지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업군만 골라 보면 다섯 가지로 줄어 드는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언론인의 영향력이 너무 적다는 동정은 주로 전문적과 관리적 등 고위직에서 하고 있고, 생산적이 약간 이에 동조하는 편이다. 교사에

〈표 13〉 직업별 직업군 부당 영향력 지수(사회발전연구)

응답자직업 직업군	농업 직	판매· 서비스 직	생산적 직	사무 직	전문 기술 직	관리 직	전문적 직	평균	유의도
언론인	4.4	-3.1	-6.9	4.0	-6.0	-8.1	-9.1	-5.6	***
교사	-13.0	-18.4	-18.3	-15.8	-21.5	-36.8	-41.0	-17.3	**
종교인	-1.6	.0	.0	-1.1	2.0	-2.7	4.4	-3.1	*
국회의원	21.7	19.5	29.8	21.4	20.0	23.0	23.9	22.3	*
대학 교수	-6.0	6.0	-14.0	-10.0	-22.9	-15.8	-13.0	-3.5	**

유의도수준 \* p<.05, \*\* p<.01, \*\*\* p<.001.

대한 같은 동정도 전문적, 관리적 등 고위 직종에 국한한다. 국회의원의 부당 영향력에 대한 비판은 생산적과 고위 전문직에서 가장 날카롭다. 대학 교수 가 너무 영향력이 적다는 이들은 판매·서비스직을 제외하고는 모두이다.

여기에서는 그리 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별로 자신의 직종과 비슷한 직업군에 대한 동정심이 더 크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대체로는 학력이 높은 직종에서 더욱 의식이 강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 같다.

## (2) 「부당 영향력」 행사 직업군의 수적 분포 의식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의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의식을 그것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다고 평가받는 직업군 사람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힘이 너무 적다고 지목된 직업군의 빈도를 가지고 그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이번 조사연구에 응한 성인들은 6.91개 즉 약 7개의 직업군이 부당한 영향력을 배당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분포는 매우 산포가 커서 표준편차가 4.0에 이른다. 따라서 빈도가 6 이상인 경우가 2개에서 10개에 이르고 있다. 어찌 되었든 18개 직업군 중에 7개면 3분의 1을 약간 초과하는 숫자라는 것이 눈에 뜨인다.

이것을 다시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표 15〉의 자료와 같다. 이 경우에도 영향력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고 지적된 직업군의 수를 평균했을 때, 30대 이하 젊은이, 고학력자, 고소득층 그리고 대도시의 중상 이상의 계층에서 불공정한 힘의 구조를 의식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이 드러난다.

대체로 사회구조의 특성에 관한 의식수준이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결국 이들은 힘(사회적 권력)의 배분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어, 그렇지 않아야 할 사람들은 지나치게 큰 힘을 누

〈표 14〉 「부당 영향력」 행사자 수의 분포

직업군수	빈 도	%	직업군수	빈 도	%
0	40	4.9	10	73	8.9
1	37	4.5	11	47	5.7
2	51	6.2	12	39	4.8
3	58	7.1	13	20	2.4
4	56	6.8	14	13	1.6
5	60	7.3	15	9	1.1
6	80	9.3	16	9	1.1
7	75	9.1	17	6	.7
8	76	9.3	18	4	.5
9	67	8.2	계	820	100.0

평균치 = 6.91

표준편차 = 4.0

리는 반면, 그래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무력하다는 식으로 구조적 불균형 현상에 민감한 것이다.

이번에는 앞서 불신도 복합지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부당 영향력 복합지수」(the composite index influence misallocation)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1981년의 지수값은 36.1이고, 불신도 지수보다 약간 큰 것이라는게 주목할 만하다. 후에 다른 연구에서도 비교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 3) 각계각층 직업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태도

같은 18개 직업군에 대한 세 번째 측면의 평가는 우리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중에 「부정부패나 부조리와 같이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 요령은 「많은 편」, 「어느 정도」 및 「별로 없다」의 세 가지 선택지에 표시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부정, 부패, 부조리 행위를 하는 이가 「많은 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를 가지고 「부조리 행위」의 정도를 18개 대상직업들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에 제시한 대로이다. 이 차원에서도 부조리 행위의 정도가 가장 심하게 의식되는 경우가 제별로서 그들에게 부정부패, 부조리 행위가 많은 편이라고 믿는 이가 38.6%에 이른다. 그 다음의 세무공무원이 18.9%로서 그 절반이 약간 넘을 정도이고 10% 이상의 응답자들이 부조리가 많은 편인 것으로 지적한 사례는 국회의원, 상

〈표 15〉 응답자 특성별 부당 영향력 행사자들의 수 평균치

특 성			직업군수평균	특 성			직업군수평균
거 주 지				소 득			
서 울			7.3	10 만 원 미 만			6.4*
부 산			7.1	10~20만	원		6.6
광 주			6.7	20~30만	원		7.0
증 소 도 시			6.7	30~50만	원		7.1
음			7.1	50 만 원 이 상			8.1
총 략			6.1				
성 별				대 도 시			
남 자			6.7	S E S — 하			6.2*
여 자			7.2	S E S — 중			7.0
나 이				S E S — 상			7.7
20 대 이 하			7.4*				
30 대			7.3	중 소 도 시			
40 대			6.3	S E S — 하			4.8
50 대 이 상			6.1	S E S — 중			7.0
학 혁				S E S — 상			7.3
국 졸 미 만			6.4*				
국 졸			6.5	음	면		
중 학 교			6.2	S E S — 하			6.3
고 등 학 교			7.0	S E S — 중			6.8
대 학 이 상			8.0	S E S — 상			7.1
직 업							
농 어 업			6.5				
생 산 적			6.7				
사 무 적			7.4				
전 문 기 술 적			7.7				
관 리 적			7.3				

\* 통계적 유의도  $p < .05$

인, 경찰관, 정부의 고위직공무원, 일반공무원 그리고 판검사로 되어 있다. 한편 3% 미만의 응답자들로부터 부조리행위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사람들은 아래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대학교수(1.5%), 근로자(1.6%), 대학생(2.2%), 그리고 초중고 교사(2.8%)의 순위로 되어 있다. 의사, 중소기업주, 군장교, 종교인, 언론인, 은행원 등은 3~10%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정도이다.

대체로 기대될 만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나 부조리가 가장 심한 사람들 가운데 재벌, 세무공무원, 국회의원, 상인, 경찰관, 고위직공무원, 기

〈표 16〉 각계각층의 부정부패 부조리 행위 정도

	부조리 행위	많다 (%)	무응답모른다(%)
순위			
재벌	38.6	(1)	14.3
세무서원	18.9	(2)	11.6
국회의원	17.5	(3)	14.3
상인	17.2	(4)	11.3
경찰관	16.9	(5)	8.4
고위직공무원	13.9	(6)	20.0
공무원	10.7	(7)	8.9
판검사	10.2	(8)	17.1
의사	9.4	(9)	9.3
중소기업주	9.1	(10)	18.0
군장교	8.0	(11)	17.8
종교인	5.7	(12)	13.4
언론인	5.6	(13)	18.9
은행원	3.4	(14)	12.1
교사	2.8	(15)	7.3
대학생	2.2	(16)	13.4
군로자	1.6	(17)	11.1
대학교수	1.5	(18)	14.8

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 본 불신도나 부당 영향력 행사의 순위와 비교해 보면, 이들이 대개 가장 불신 받으면서 영향력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 속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하겠지만, 우선 우려의 대상이 될만한 결과임은 숨길 도리가 없는 것 같다.

#### (1) 응답자 특성별 각 직업군의 부조리 행위 정도 비교

이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나타난 성향이 대체로 반복되는 것 같다. 통계적인 차이가 의미있는 것들만을 중심으로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재벌, 세무공무원, 국회의원, 상인, 경찰관, 고위직공무원 및 일반공무원들 가운데 부조리 행위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 고소득층 20~30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더 많다. 그 외의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더 자세한 해설은 피하겠다(〈표 17〉 참조).

같은 절차를 위해, 이번에는 직업별로 부조리 정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 직업군만 골라 〈표 18〉에 실었다. 이 표에다 특별

히 표시한 것은 부조리 행위의 정도가 평균보다 적다고 지적한 경우에 한한다.

아무래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 하위직 공무원(경찰관 포함)이 있어서인지, 그 두 직업군에 대해 부조리가 많다는 이가 비교적 적다. 다음은 관리직에 있는 이들이 보기에 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비위가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태도인 것 같다. 재벌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 비판적이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관리직과 화이트칼리 직종이 부정적인 태도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등 하위 근로계층에서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 (2) 부조리 행위가 많은 직업군의 수적 분포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부패나 부조리 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편이라고 인식되는 인물군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를 또 알아 본다.

〈표 19〉에 요약된 결과대로 이번 조사연구의 응답자들이 부조리 행위가 많은 편이라고 지적한 인물군의 평균수는 2.26개이고 표준편차가 2.65이다. 한 직업군도 지목하지 않은 응답자가 37.9%로 으뜸이고 다음이 1개, 2개, 3개의 순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많은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인물군이 14개 이상이라고 지적한 이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역시 복합지수로 나타내어 보면 1981년도의 「부조리 복합지수」(the total index of corrupt irrational acts)는 12.9가 된다. 평균치가 2, 3개라든가 복합지수가 12.9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직업군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다시 비교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른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었고, 그 경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직업군수가 더 많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특성에 의한 차이는 의미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자료를 수표로 제시하는 일은 생략한다.

간추려 보면, 전반적으로 18개 주요 직업군을 두고 볼 때 부정부패나, 부조리 행위가 빈번한 경우는 평균 2~3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조리 편제도는 그리 대단치 않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점은 그러한 행위를 빈번히 지적받는 직업군들 가운데는 재벌, 각급공무원, 정치인, 상인 등 정치·경제 분야의 사람들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인식

〈표 17〉 응답자 특성별 각 직업군의 부조리 행위 정도 비교

	재 벌	세무서원	국회의원	상 인	경 찰 관	고 위 직 공 무 원
거 주 지						
서 울	46.7	27.1*	23.6	19.3*	26.4*	20.3
부 산	49.3	27.3	25.5	16.5	21.5	23.2
광 주	43.1	25.4	25.9	15.3	17.7	16.1
증 소 도 시	47.6	11.6	19.5	8.4	10.6	19.4
읍	44.3	21.8	17.6	23.1	18.3	14.4
촌 락	38.7	16.6	15.5	28.2	13.8	12.1
소 득						
10 만 원 미 만	44.7*	18.0*	18.1	25.1*	14.4*	19.6*
10~20 만 원	39.0	17.6	17.0	23.4	15.9	11.9
20~30 만 원	46.9	21.5	21.7	14.7	19.3	19.6
30~50 만 원	50.0	26.2	24.5	18.2	22.3	20.0
50 만 원 이 상	52.8	33.6	27.5	12.6	25.6	24.1
교 육						
국 졸 미 만	32.2*	12.8*	17.6*	27.6	17.5*	16.9*
국 졸	39.4	16.9	14.7	21.0	10.7	12.4
중 학 교	41.6	24.0	14.0	17.4	17.4	11.7
고 등 학 교	48.4	18.3	22.4	16.3	17.8	18.4
대 학 이 상	55.2	32.8	32.4	21.3	29.7	28.4
연 령						
20대 이 하	45.9*	21.4	25.0*	18.9	23.0*	20.9
30 대	48.0	26.3	22.8	21.2	23.3	18.2
40 대	49.3	20.8	14.6	19.4	13.1	15.0
50대 이 상	35.5	16.2	16.2	18.1	10.8	13.5
성 별						
남 자	44.3	23.6*	20.0	20.2	20.3	17.3
여 자	46.0	18.4	21.1	18.4	15.9	17.6

되면서도 사회 전반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위에서 분석한 18개 직업군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비하여, 그들에 대한 불신도와 부조리 정도를 비교·검토하는 일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자료로부터 우리는 사회정의와 사회질서, 곧 사회구조의 공정성의 문제의 근원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공무원	판검사	의사	증소기업	군장교	종교인	언론인	은행원	교사	대학교수
15.7*	9.8	8.7	7.3	11.3	6.2	4.6	3.1	4.6	1.6
14.7	12.9	9.9	11.9	11.2	6.4	7.1	5.6	1.4	1.4
17.7	18.3	6.7	5.4	16.4	4.8	11.5	5.4	1.6	3.3
7.3	11.0	8.7	11.3	7.4	3.4	7.6	2.8	2.6	1.2
9.9	12.1	11.7	14.5	9.4	6.3	6.2	4.0	3.4	0.9
9.5	14.4	14.0	13.3	6.8	10.9	8.3	4.2	2.3	3.1
9.9*	11.0	11.9	16.6	6.7	11.1	5.3	7.6	1.6	2.5
8.9	12.4	11.2	11.3	8.0	6.4	6.5	23.5	3.7	1.3
12.2	11.7	9.8	12.0	8.8	5.0	6.2	3.1	3.7	2.3
16.8	14.8	7.4	8.6	12.4	5.1	9.5	2.6	1.9	1.6
15.6	11.4	12.9	6.6	16.0	7.1	6.3	4.7	3.8	0.8
11.1	14.5	12.5	15.6	8.6*	14.9*	4.2	6.2	2.0	1.1
7.8	10.7	13.1	12.3	5.7	5.8	7.5	2.6	2.0	1.8
10.3	10.5	10.9	10.3	10.2	8.9	6.0	4.0	5.6	2.0
11.3	11.1	9.6	10.5	8.3	3.9	4.9	3.3	3.4	2.1
18.5	17.0	6.5	9.0	16.2	5.5	11.5	5.1	1.1	13.6
13.6	13.4	7.7*	10.1	12.1	7.7	7.2	3.9	3.9	1.8
11.7	15.4	14.5	14.2	9.3	7.3	9.7	5.9	5.6	2.0
12.2	11.5	11.2	11.1	8.2	4.9	5.4	3.0	0.8	1.3
8.4	7.7	9.4	9.3	7.7	5.9	4.4	2.6	0.8	1.7
13.2	13.1	11.5	12.1	10.1	6.2	8.3*	4.2	2.0	1.5
9.8	11.1	9.0	9.7	9.0	7.2	4.8	3.5	4.3	2.0

\* 통계적 유의도  $p < .05$ 

〈표 18〉 직업별 직업군 부조리 행위 정도(사회발전연구) (%)

직업군 \ 응답자직업	농어업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전기기술직	관리직	전문직	평균	유의도
하위직 공무원	12.1	13.1	11.9	9.3	18.8	17.9	18.2	10.7	***
세무공무원	19.2	27.5	26.3	20.2	33.3	18.9	33.3	18.9	*
경찰관	16.3	21.2	24.6	15.0	29.2	12.8	26.1	16.9	***
재벌	41.8	43.0	41.8	40.0	65.1	41.0	59.1	38.6	***
국회의원	18.0	15.6	12.3	23.4	22.7	23.5	17.4	17.5	***

유의도 수준 \*  $p < .05$ , \*\*\*  $p < .001$ .

〈표 19〉 부조리 행위가 빈번한 직업군의 수의 분포

직업군의 수	빈 도	%	직업군의 수	빈 도	%
0	311	37.9	8	19	2.3
1	129	15.7	9	10	1.2
2	92	11.2	10	5	6
3	84	10.2	11	5	6
4	52	6.3	12	5	6
5	41	5.0	13	1	1
6	36	4.4		820	100.0
7	30	3.7			

평균치 = 2.26

표준편차 = 2.65

## 4) 각계각층 직업의 부당 영향력, 불신도 및 부조리 비교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나 직업에 비하여 부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직업들(또는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불신(신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또 그들 사이에서는 부정 부폐와 부조리 행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사회적인 불신도가 높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는 「부당 영향력 지수」와 「불신도 지수」(신임도 지수의 반대) 그리고 「부조리 행위지수」를 도표로 짐작어, 이들 세 지수 사이의 차이 또는 유사성을 비교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향력, 불신도, 부조리 지수의 순위를 가지고 Spearman의 rho 즉 순위상관계수를 계산하여 통계적으로 그들간의 관계를 분석·검토하는 절차이다. 이들 자료는 〈표 6〉, 〈표 11〉 및 〈표 16〉에서 따온 것들이다.

먼저 〈그림 1〉을 보자. 이 경우 영향력 지수는 〈표 6〉에 나타난 대로이고 불신도 지수는 〈표 11〉의 「신임도 지수」의 역수, 즉 부호(±)를 거꾸로 매긴 것이며, 부조리 지수는 약간 복잡한 절차를 밟아 다시 계산한 것이다. 〈표 16〉의 원자료에는 부정부폐, 부조리 행위가 많은 편이라 대답한 응답자의 %를 제시한 것으로 부조리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수의 범위가 1.5에서 38.6에 이르는 (+) 방향 밖에 없고 범위의 크기도 37.1 정도의 소폭이므로 다른 두 지수가 (±)로 있을 뿐 아니라 폭도 폐로 큰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의 평균치를 냈 결과 10.7이었고, 마침 공무원에 대한 응답율이 10.7%인자라 이를 0으로 삼고 그보다 큰 것에 (+), 작은 것에 (-) 부호를 주기로 했다. 그래도 범위가 37정도 밖에 안되므로 이를 18로 나눈 2의 값을 곱해서, 「평균치 10.7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2」를 지수 점수로 하여 그림에다 찍었다.

그 결과 매우 흥미있는 사실들이 엿보인다. 검은 굵은 줄로 영향력의 부당 배분 정도를 순서대로 나타낸 다음 점선으로는 불신도를, 2중선으로는 부조리 정도를 그렸는데, 대체로 영향력과 부조리 곡선이 가는 방향이 비슷한 대신 영향력 곡선에 대비할 때 불신도 곡선은 들쑥날쑥이 크다. 그런가 하면 불신도 곡선과 부조리 곡선의 들고남의 방향은 또 서로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로 부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도가 큰 직업들 가운데 불신도나 부조리 정도가 낮은 경우는 판·검사, 군장교, 의사, 그리고 고위직공무원 등이고,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부조리 정도가 큰 이들은 상인들이 으뜸이고 중소기업가가 다음이다.

둘째, 불신도가 높으면서 부조리 행위도 빈번하다고 인식되는 직업들은 재벌, 세무공무원, 상인, 경찰관 등이다. 영향력, 불신도, 부조리 세 가지 모두에서 그 정도가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재벌이 으뜸이고, 세무공무원, 중소기업주 등이다. 영향력도 비교적 적고 불신 받지도 않으며 부조리 행위

〈표 20〉 각계각층 직업군의 영향력, 불신도 및 부조리 순위 비교

인물군	부당영향(A)	불신도(B)	부조리(C)	인물군	부당영향(A)	불신도(B)	부조리(C)
재고위직공무원	1 2	1 8	1 6	공무원	10	10	7
국회의원	3	5	3	종교인	11	7	12
판검사	4	13	8	대학교수	12	18	18
세무공무원	5	4	2	언론인	13	9	13
군장교	6	15	11	은행원	14	14	14
경찰관	7	6	5	대학생	15	12	16
의사	8	11	9	상인	16	2	4
중소기업주	9	3	10	교사	17	17	15
				근로자	18	16	17

순위상관계수  $A \times B = .456^*$

$A \times C =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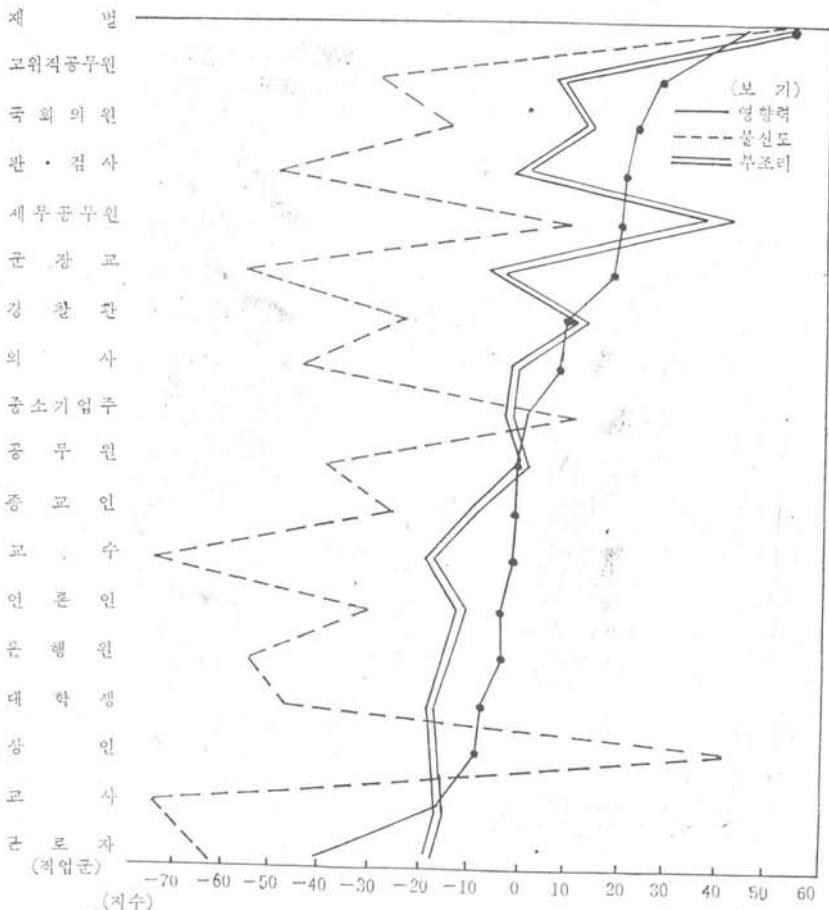
$B \times C = .812^{***}$

통계적 유의도 : \* $p < .10$ , \*\* $p < .01$ , \*\*\* $p < .001$

도 저지르지 않는 직업들 가운데는 근로자가 으뜸이고, 교사, 대학생, 은행원, 인론인, 교수 등이 속한다.

좀 더 통계적으로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이 세 가지 사이의 상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순위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20>에 나와 있는 대로이다. 영향력과 불신도 사이에는 .456의 순위상관계수가 있고 이의 통계적 유의도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영향력과 부조리 사이에는 .723의 상관도가 있고 이는  $p < .01$ 의 수준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에서는 부당한 정도의 사회적 힘을 소유,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가 약간 높은 편이고, 그들의 부정부패, 부조



리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신을 많이 받는 이들일수록 부조리한 행위도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아마도 부폐하기 때문에 불신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순위상관계수는 .812로  $p < .001$ 의 수준에서 의미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질서나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불행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 힘이 큰 것부터가 사회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다가 그런 이들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한다면 이는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부정부폐, 부조리 행위에서도 남보다 앞장선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다면 이야기로 사회질서의 근원적 문제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경제계의 지도급 인사집단, 정부와 정치 부문의 지도자와 이권에 직결되는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이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회의 <문제성>의 본질을 말해 주는 듯하다.

#### 4. 요약과 논의

요약컨대, 되풀이하거니와, 직업에 대한 가치의식이나 사회경제적 보상에서 일정한 차등이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 본 자료에서 확실하게 읽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들 가운데는 부당한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도 알았다. 그리고 이런 직업일수록 사회의 불신도 더 많이 받으며, 부조리를 자행한다고 인지하는 정도 또한 더 크다는 게 밝혀진 셈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료 분석을 하는 계제에도 언급한 것이지만, 사회의 기회구조에 대한 인지가 대체로 불공정한 구조를 반영하는 것 같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결국, 사회적 현실이란 얼마간의 불평등을 지니게 마련이고, 그것은 또 사회의 성원들이 그렇게 인지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불평등이라 해도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생겨난 현상으로 인식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는 그런 사회적 계층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아니냐에도 차이가 나는 법이다.

사실, 순환논리로 빠지기 쉽지만, 사회적 불신의 원인적 요인도 바로 이와 같은 불공정한 배분구조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니까 더욱 불신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불신도가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면, 그만큼 더 불신이 짙어진다. 사회적 불신은 사회적 불평등보다도 더 위험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것은 사회의 주요 부문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넓히는 요인이고, 거기에다 권력배분에서 소외, 배제당한다는 인식이 겹친다면, 사회적 통합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비록 단편적이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그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다루는 자료를 분석하고 그 뜻을 새기는 까닭은 그런 자료에서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의식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고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 〈참 고 문 헌〉

김경동, 이해영

1970 『설업교육과 직업—설업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연구총서 제 4 호.

1979 「직업평가에 의한 기회구조의 인식」『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1권 제 3 호. 63~76.

이만갑

1957 「도시 학생의 직업관념」『사회과학』 제호 : 125~142.

이상백, 김채윤

1966 『한국사회계층연구』 민근사.

Dahl, R.

1961 *Who Gover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omhoff, G.W.

1967 *Who Rules America?*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Form, W.H., and J.A. Huber

1976 "Occupational Power," Robert Dubin(ed.) *Handboook of Work, Occupation and Society*, Chicago : Rand McNally : 749—806.

Hunter, F.

1953 *Community Power Structure*, Chapel Hill: Univesity of North Carolina Press.

Kim, Kyong-Dong

1978a "Occupational Evaluation, Meaning of Work, and Commitment to Industrialism: A Study of Korean Workers." 『지우 번시민박사 회감기

- 『념논문집』: 321-338.
- 1978b "An Empirical Test of the Functional Theory of Stratification : Korean Workers' Occupational Evaluation," *Korean Sociological Review* 2 : 1~20.
- Mills, C.W.
- 1951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956 *White Coll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valko, R.M.
- 1971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taca, Ill. : F.E. Peacock Pub. Inc.